

# 차마설(借馬說)

1 이곡

## 작품 분석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쫓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부연해보노라.

▶ 잘못된 소유 관념에 대한 비판



## 핵심 정리

### 작 품 개 관

- **갈래:** 한문 수필, 설(說)
- **성격:** 교훈적, 경험적, 예시적
- **구성:** 자신의 경험 + 깨달음 + 교훈
- **주제:** 소유에 대한 성찰과 삶의 깨달음
- **특징**
  - 유추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 하여 교훈적 내용을 도출.
  - 사실(경험)+의견(경험의 일반화)의 구성 방식.
  - 설의법, 영탄법, 인용법, 유추, 열거법 사용
  - 우의적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

더! 깊은 공부

### '설(說)'과 작품들

- **'설(說)'**: '설'은 한문 문체의 일종으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문학 장르로 우의적, 비유적, 교훈적 성격을 지닌다. 내용상으로는 교훈적 수필에 가깝고 '일화+깨달음+교훈'의 서사적 구성을 취한다.

### • 작품

- ▶ **슬견설:** '이'와 '개'의 죽음을 통해 모든 생명체가 동등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내용.
- ▶ **주옹설:** '배'에 사는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긴장과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
- ▶ **이옥설:** '집'의 기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해야 함을 강조.

### 이 해 감 상

이 글은 한문을 번역한 글로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인간의 삶의 자세를 깨우치도록 한 교훈적 교술 장르이다. 즉, 비유와 유추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글쓴이가 깨닫고 알리고자 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빌려서 쓰는 것이기에 항상 소유에 대해 '무소유'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었다. 임금도 권력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상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종은 주인에게 빌림이 있다는 것을 통해 대부분의 것들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